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역사세계에 생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소망이 되어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매를 타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각 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입으로 생령으로 증거하는 중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이다 (시편 14: 1)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6호 2012년 10월 2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무종교인=교회 안다니는 사람' 젊은층 회귀 기대

퓨포럼 설문조사 "미국, 더 이상 기독교국 아니다" 경악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로 불리며 미국을 건국한 기독교도(Protestant)는 미국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실상 미국의 국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조사기관 퓨포럼이 발표한 조사결과("Nones" on the Rise :One-in-Five Adults Have No Religious Affiliation)에 따르면 전체 개신교도의 비율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미만인 48%를 기록했다고 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본지 10월 13일자 제1405호 6면 참조).

미 연방대법원 판사 중 개신교 출신이 전혀 없고 미국의 전통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마저도 몰몬교 출신인 미트 롬니가 선출되는

등 기독교의 쇠퇴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유럽에서 이민 온 백인개신교인(WASP)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기독교의 영향력 감소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고됐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그 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하는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따라서 CNN, ABC, FOX 뉴스 그리고 영국의 BBC,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은 앞 다퉈 미국에서 개신(기독교)교인의 과반수 미달을 "충격" 또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퓨포럼은 공영방송 PBS와 함께 6월28일부터 7월9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48%(오차범위 ±0.9%)만이 자신을 개신교도라 밝혔다. 전국의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는 '기독교 국가'로 불리는 미국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는 징후로 일부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영국의 BBC나 가디언 등 지구촌 미디어들이 미국의 개신교인 과반수 미달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미국만이 선진국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50% 이상을 웃도는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즉 2004년 통계로, 미국만이 '선진국 중 개신교 및 기독교 믿는 인구'가 50%가 넘는 유일한 국가였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향후 50% 미만에 달한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2004년 시카고대학교 전국여론조사소(NORC)의 조사에서 정확하게 제기됐다.

동 조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3-2002년 사이 개신교인임을 자임한 미국인들의 비율이 63%로부터 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연합감리교회와 장로교회 및 성공회 같은 주류 개신교



미국이 더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통계적 숫자는 전 세계를 놀라움에 빠지게 했다.

회들은 수년 동안 교인들을 잃어왔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근본주의 교회들에서의 입교자 수 증가로 손실을 보전 받아왔다.

그러나 교인 수 1천600만 명 이상인 미국 최대 기독교파인 남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너무 작아 이들 교파에 입교자 수가 늘었다 해도 미국 전체 기독교인들 수의 증가엔 기여하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 남침례교단에

서조차도 교인 수가 정체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2004년 NORC조사서가 분석한 개신교인 감소의 주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무종교라고 응답한 자들의 수가 1993년의 9%에서 2002년엔 14%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많은 수가 과거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나 유대교 이외의 종교에 소속됐다고 답한 미국인들이 1993-2002

년 사이 3%로부터 7%로 증가했다. △청년들과 성인들이 대거 기독교 파들을 떠나면서 비기독교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 인구점유율을 높였다. △기독교인들로 양육되고 있는 주민들의 비율이 낮아졌다.

오늘날엔 미국 성인들의 55%가 기독교인들로 자라고 있으나 1980년대엔 이 비율이 67-68%였다.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적어졌다.

결국 교회는 외면을 받게 됐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NORC의 예측은 이번 퓨포럼의 설문조사에 따라 증명됐다.

크리스천포스트 지는 사실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주류교단과 신학교에서 벌어진 행태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Farewell to the American Protestant Majority):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주류교단들은 모든 신학적 유행(사신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등의 대중신학: 편집자 주)들에 사로잡혀 교단 신학교들을 비밀 막스시스트 이데올로기들로부터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정치 그리고 하 나남까지도 중성으로 찬미하는 예 전으로 연구하게 했다."

(3면으로 계속)

초신자 정책은 소그룹 핵심 사역!

스몰그룹닷컴, 교회정책 위한 소그룹 역할 안내

소그룹은 믿음이 어리거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토양이다. 소그룹에는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일, 즉 초신자들을 잘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소그룹이 가지는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그룹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사역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소그룹 리더가 느끼기에 초신자는 기존의 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사람도 똑같은 수 없듯이 초신자들은 각기 다양한 삶의 체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체험과 배경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초신자들이 쉽게 소그룹에 적응하고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와 기존 성도들은 상당히 큰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초신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 하나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옮겨온 사람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나 기도하기, 성경읽기 등의 보편적인 신앙생활 측면에서는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예배 분위기나 성도들 간의 교제,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생소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다.

비록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교회 분위기나 영성의 색깔은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

교회생활 했나 안했나, 자발적 비자발적 등 초신자 특성 파악 우선...관심과 역량 필요

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다고 해서 쉽게 우리 교회와 소그룹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느끼는 문화충격이나 주변인 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소그룹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아예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전혀 자발적인 의사가 없는데 주위 사람들(가족이나 친우관계)에 의해서 교회생활을 비자발적으로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성경과 교회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존 신자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방식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기존 신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위해서는 친절하고 구체적인 교회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모두들 당신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가 반드시 기존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초신자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면으로 계속)



어플 통해 선교 제한 지역에 성경보급



"어디든지 따르라" 예수님 강력한 초대에 부응



영적 싸움...의료법 위반사항 8지 밝혀



투고 칼럼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인터뷰 임준규 선교사

2012년 추계 대부흥성회

주제: 하나님 중심



홍민기 목사
*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일 시 추후 2012년 11월 1일(목) - 4일(주일)

저녁집회 매일저녁 오후 8시(목-토)

새벽집회 2일(금), 3일(토) 오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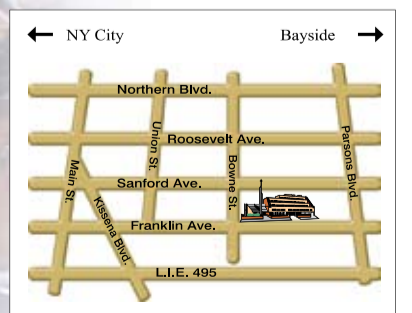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4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집회도 있습니다.(금-토 저녁 8시, 주일 오후 4시)



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박규성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시론

감사로 채워가는 행복



양준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헌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헌금절차가 돌아가고 있었고, 성도들은 각자가 준비해온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1프랑도 헌금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7프랑을 접시에 세워서 놓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하고 묻자, 이 시각장애인은 웃으며 "저는 눈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때때 불을 켜는 비용이 일 년에 27프랑이 든다고 하더군요. 나는 불을 켤 필요가 없어 일 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저축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 감사는 외부조건이 아니라 마음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자신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평하며 살면 불행한 사람이고, 매우 가난해도 이미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을 더해가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한 일시적이고 작은 것은 기억하며 감사하면서도 지속적인 큰 것에 대한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직장을 얻어 일하게 되면 새 잡(job)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난로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매일 변함없이 떠올라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빛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크고 지속적인 은혜의 선물들, 햇빛과 공기, 일용할 양식과 건강, 기도의 응답 이전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행복을 더해가는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받은 선물 그 자체보다 그것을 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받아 쥔 선물에 모든 관심을 쏟느라 그것을 주신 분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 창고 안에 기어들어간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좋은 곳을 발견하고 먼저 천장에서부터 한 줄을 쑥 내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거미줄(web)을 멋지게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먹이 들어가는 먹이가 걸려 들었습니다. 늘 배불리 먹어 이제 제법 똥똥해진 거미가 어느 날 자기가 쳐 놓은 거미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야, 누가 쳤는지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러다 문득 가운데서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한 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줄은 무엇 때문에 있지? 한 번도 먹이를 잡아내지도 못하는데..."하고는 그 줄을 툭 쳐서 끊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거미 웹(web) 전체가 다 폭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늘 위로부터 나를 붙드시고, 변함없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항상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예물과 섬김으로 삶에 행복을 채워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플 통해 선교 제한지역에 성경 보급

미션뉴스, 덴마크 기독교출판사 미디어 선교 소개

본격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터넷을 통한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전략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가운데 덴마크 한 기독교 출판사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어플)을 개발하며 미디어선교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안드로이드(Android)와 킨들(Kindle)용 어플도 개발 중이다.

동 출판사의 관계자(Oressen)에 따르면 출판사의 성경 어플이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매일 60여 개국에서 성경과 성경서적이 300회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94회, 중국에서 23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9회, 말레이시아에서 9회, 러시아에서 7회, 이집트에서 4회 다운로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날에는 사우디아

라 어린이 성경을 다운로드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중국에서 다운로드 회수가 계속 높아가고 있다고 공개했다. 성경 다운로드의 자유화가 지속된다면 어플을 통한 중국의 성경 보급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동 출판사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출판사이다. 특히 어플을 통한 성경 보급은 이 출판사에 복음 전파의 새로운 수단인 되고 있다.

또한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출판사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서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시리즈의 1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어플을 통한 서적 구매는 우편이나 택배비용이 없으므로 인쇄된 책 구입보다 저렴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동 출판사는 현재 영어로 된 디지털 서적만을 출시했지만 다른 언어의 책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플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로 녹음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인데, 이 기능을 통해 부모나 조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녹음해 자녀나 손자들에게 언제든 지 줘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출판사는 밝혔다.

이러한 어플을 이용한 선교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권 선교에 잘 활용되도록 접근해야 한다.

매일 60개국서 성경/성경서적 300회 다운로드 이슬람권·공산권 선교에 활용 큰 기대

덴마크의 기독교출판사(Scandinavia Publishing House(www.scanpublishing.dk))는 85종의 어린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아

이폰(iPhone)과 아이패드(iPad)용 어플을 출시했는데, 이 어플이 선교 제한지역인 무슬림 지역과 공산권 지역에서의 성경보급에 기여

라비아에서만 52회 다운로드가 기록되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레센은 지난 2010년 중국 정부로부터 어플을 통해 디지털 성경

“어디든지 따르라!” 예수님 강력한 초대에 부응

크리스천북리뷰,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팬인가 제자인가?” 소개

미국 사우스이스트크리스천교회의 교육목사인 카일 아이들먼(Kyle Idleman)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을 통해 ‘당신 스스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믿지만, 실상은 팬이 아니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진다. 먼저 그는 작심하고 균중을 모으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배당을 짓지 않으셨던 예수의 모습을 서문에 배치한다. 기적에는 열광했지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를 따라 엄두를 못 내던 수많은 균중들이 떠나갈 때도 예수는 전혀 연연치 않으신다. 오히려 올바른 복음 선포와 성화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성도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6:26)라고 싸늘하게 말씀하신다.

아이들먼 목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토대로 팬과 제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

관계인가? 할기왕성한 모태신앙인이었던 저자는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의 사진 옆에 예수님의 그림을 나란

라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삶에 철저한 검증 없으면 ‘예수 지식’ 통달해도 무효 제자로 삶의 변화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곧 실천

나날이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이러하다. 삼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많은 애인 중 한명? 단 하나뿐인 애인? △올법인가? 은혜인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의무인가?

히 걸어두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한다. 가족과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적어도 세권 이상의 성경책을 갖고 있으며 핸드폰 벨소리도 가스펠송으로 바꾸었지만 회생과 대가가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내심 예수의 수많은 팬들 중 하나로 묻어가기를 바

책속에서 대표적인 예로 든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 저자에 따르면 처음 니고데모는 예수의 팬이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 일찌감치 예수께 열광해왔지만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인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남들의 이목을 피해 한밤중에

야 예수를 찾았다(요3). 그러나 그는 곧 예수의 위엄 앞에 꺾어졌고, 제자와 팬으로서의 삶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다. 이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옹호하고(요7), 예수의 십자가 행렬 후 장례를 준비하는(요9) 니고데모의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성경에서 예수가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 환기한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예수에 대해 통달한 자라 할지라도 삶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증이 없이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자신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는지 의심하고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목회자인 저자가 창업하는 기업처럼 교회를 개척하려 했던 과오를 뉘우치고 ‘와서 죽으라’는 십자가 원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기까지의 변화의 과정은 개인의 결단인 아닌 말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으로 가능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를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예수가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865-0009 (대 표) (323) 865-9025 (광고국)
Fax: (323) 865-0056 (편집국) (323) 8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목회자 설교 세미나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을 위한 설교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하고 영성깊은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물별 강해설교의 준비와 전달



김현오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설교, 역동적 복음의 선포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한규삼 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예배소서 강해설교 연습

일시 10월 30일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Jenny), email: jennylee@apu.edu
- 10월 23일까지 http://koreanpastors.eventbrite.com 로 등록해주세요.



AZUSA PACIFIC UNIVERSITY



이성은 자매 안락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만호 목사(왼쪽)가 거절당한 요양원 명단을 들어보이고 있다. 옆에는 제이킴 집사.

영적 싸움...의료법 위반사항 8가지 밝혀 존엄사 논란 이성은 부친 이만호 목사 기자회견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논란 중에 있던 이성은 자매 아버지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경과를 밝히고 8가지 사항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이만호 목사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3일 전 병원 측과 면담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제이킴 집사(소망교회)는 "노스쇼어 병원에 들어간 지 43일이 됐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 성은자매는 그가 있는 병동의 10개 병실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 요양원에 갈 수 없는지 심증이 있을 뿐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병원의 태도를 동포사회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8가지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스쇼어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1. 환자에게 중환자실(ICU)에서 고통완화병동(PCU)으로 이송될 때 PCU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않았음. PCU에서는 수면제, 몰핀(진통제)만 투여함. 2. Patient & Family Relations Dept.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행정적 절차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행하지 않았음. 3. 소수민족인에도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음. 4. 계속되는 필요 이상의 투약으로 환자를 약물중독으로 몰고 갔음. (이전 치료병원에서 투여했던 양의 100배 이상의 수면제를 투여했음). 5. 계속되는 보호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음. 6. 23곳의 요양원이 병원 소설위커와 이야기 후 환자를 거부함. 7. 비이성적인 환자에게 계속된 약물 투여를 부추김. 8. 계속되는 의사와 소설위커, 간호원의 약속 불이행으로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

이만호 목사는 "15일 아침 주치의가 방에 들어오더니 성은이 눈 까풀을 뒤집어보고 손으로 눈의 동공을 만지면서 거의 가망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전 11시 병원의 대표자인 수잔과 주치의와 통역자 김세형 목사, 성은이 오빠 오진이가 참석한 미팅에서 성은이가 못 깨어날 것이니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했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그러나 성은이는 11시 30분경 상태가 좋아졌고 병원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기사가 나간 후 동일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셨고 해독 작용을 하는 민간약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지난 9월 24일 죽었을지도 모르는 성은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시간이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졌었는데 병원의 횡포로 점점 힘들어 하고 디프레스가 더 심해져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성은이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성은자매의 병실에는 가드가 24시간 병실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다. 또 성은자매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진 후 병실에는 어느 누구도 셀폰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성은자매의 안락사 반대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도움을 주기 원하면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718-461-7835)나 이만호 목사(718-938-1777)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무종교인=교회 안다니는 사람' 젊은층 회귀 기대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실제로 개신교인의 과반수 미달이라는 충격적인 보도에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고 크리스천리티투데이는 보도했다(Dramatic Increase in Religiously Unaffiliated Status: Why religious leaders aren't terribly troubled by the news).

퓨포럼의 이번 설문에서 같이 참여한 PBS의 '종교와윤리뉴스' 편집장 킴 로튼은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에서 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다"고 말한다. 크리스천들은 이번 설문에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만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네티컷대학교 브래들리 라이트 사회학교수는 기독교인의 감소는 상징적으로만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51%나 48%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1세기 전 미국 인구의 48%가 주류교단이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교단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됐던 교인들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비하고 있었던 주류교단 입장에서는 이미 대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조직돼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과 실제로 대안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고 있기에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이자 복음주의루터교단 목회자인 더그 스웨니 교수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당장은 무종교인처럼 행동하지만 자녀를 갖게 되면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 즉 신앙공동체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에서 조직신학과 변증학을 가르치는 호튼 교수 역시 "무종교인"이란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단지 예배하는 교회공동체를 떠났을 뿐이지, 이들에게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 드러난 "무종교인"은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처럼 전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특정 교회나 교단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68%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답하고 있고, 이들 중 20%는 매일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미디어는 단순히 숫자상의 감소를 부풀려서 보도한다. 미국을 각국으로 비교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한 보도이다. "아니 미국이 더 이상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은 그리고 이번 설문 조사를 발표한 퓨포럼 리서치 역시 발견된 수치와 추세를 통해 교회공동체의 대응을 준비하게 된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젊은 세대들의 종교성은 "영적이거나 종교적이지는 않다(Spiritual but Not Religious)"는 것.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들을 토대로 교회공동체는 영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면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10년 정도부터 예견돼 온 기독교인 감소는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일지 몰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주류교단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이를 피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향후 10년 안에 또 다시 기독교인 숫자는 증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회의 도움까지 더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디든지 따르라" ...

(2면에서 계속)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만' 따르지는 않았기에 제자가 되지 못했다.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무수한 자들에게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퀴즈대회에서 1등하는 영예와는 다르다. 그 삶에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다. 아이들만 목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크리스천 독자들을 향해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예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르라고 강조한다.

(1면에서 계속)

새롭게 들어온 초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도 기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 초신자를 양육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사실 초신자를 잘 양육하는 소그룹은 초신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애정과 정성을 쏟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적 장벽을 느끼는 초신자들에게는 집에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함께 극장에 가거나 야외 소풍을 다니는 등의 이벤트까지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리더와 기존 구성원들이 협력해 초신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울 때 초신자들의 정착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새소망 칼럼

사명자로 새로 태어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바울은 성령에 사로 잡혀 성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곳에서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나 죽음이나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행20:22, 24). 사람의 목숨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또 명예나 권세를 준다 해도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인간은 세 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첫째는 생명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며, 둘째는 정신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즉 올바른 판단력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본능의 충동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며 셋째는 사명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즉 책임있는 인생으로서 무엇인가 숭고한 자기 임무를 깨닫고 그 임무 수행을 위해 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명감이 투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명(使命)이라는 사(使)자는 심부름 할 사자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을 주의 사자(使者)라 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작은 심부름꾼은 소사(小使)라 하고 큰 심부름꾼은 대사(大使)라고 한다. 대사는 자국의 국가원수로부터 다른 나라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가의사를 표시하는 임무를 가지며, 자국의 국가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사를 전권대사(全權大使) 혹은 특별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라고 부른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 받고 특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사도(使徒)라 부른다. 사명이란 명(命)자는 목숨 명자로서 곧 중대한 심부름을 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그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의 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명감이다.

교회의 일 말은 직분자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심부름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교회의 사명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 각자 중요한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명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받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목숨을 걸어야겠다. 요즘 교회에서 "목걸이 운동"이라는 것이 실행되고 있다. 교인들의 교회에 부흥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운동이 목걸이 운동이다.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목걸이 운동 목사, 목걸이 운동 장로, 목걸이 운동 권사, 목걸이 운동 교인되기를 바란다. 사명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길은 오직 헌신이다. 헌신은 자기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몸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마음과 힘을 다 쏟아 붓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교회나 사회 각계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모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역사의 대업(大業)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예술의 거작(巨作)이나 학문의 훌륭한 업적을 보면 모두 헌신의 산물인 헌신의 결과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려면 받은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용기와 헌신의 젊은 대통령 J.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네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둘째 당신은 총명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헌신은 인간 최고의 덕이요 가치이다. 나는 케네디가 한 이 말을 늘 기억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역사에 아름다운 헌신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싶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사명자로 새로 태어나 참된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Dr. Stephen Park

- MA Courses (석사과정)
-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MIN501 Theological Seminar 1(신학개론 1)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MIN 531 Ministry & Cultural Diversity(목회와 문화의 다양성)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당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몇 년 전 일본에 '사토라레'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그 영화에는 사토라레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사토라레는 어린 시절 비행기 사고를 당해 사고 잔해더미에 깔렸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의 귀에 어디선가 '엄마,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분명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사토라레가 잔해더미 속에서 단지 마

음속으로 소리친 것인데 그 생각이 구조대원들의 귀에 분명한 소리로 들린 것이다. 이것을 귀하게 여긴 일본 군사기관에서 사토라레를 특별 관리하여 양육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토라레는 그가 품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서 언제나 자기 생각을 들으며 사는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성장해서 의사가 된 사토라레는 많은 환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특히 환자들을 향한 긍휼과 애정이 날날이 다 들켜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숨길 수 없는 사토라레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도 중요하다. 게다가 사람은 자기가 품은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컴퓨터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해도 얼마 되지 않고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내것은 구시대인 것이 된다. 참으로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이다. 그런데 좀처럼 업그레이드(upgrade)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사람들이

다.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 변화의 물결이 정작 자신에게 밀려올 때는 마음 문을 닫아둔 채 구대의 연한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옛날 그대라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운명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인생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 빵이 빵 틀로는 잉어 빵을 찍어낼 수가 없다. 빵틀을 바꾸어야 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중단하고 긍정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안 된다. 할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가 어느 날 친구의 배신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 사

업가는 절망에 빠져 매일같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데에 대한 탄식과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친구를 복수할 생각만 했다. 그때 그 교회 놀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심방을 하였다. 찾아오신 목사님에게 그 부부는 자기들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아주 절망적으로 탄식을 하며 말씀을 드렸다.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목사님은 연필과 종이를 좀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녀가 모두 몇몇입니까? 잘 지내나요?" "팔 둘 아들 둘이고 잘 사는 편입니다." "두 분께서 친구들에게 신용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친구들은 없습니까?" "왜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그럼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비록 사업은 망했지만 건강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니다." "두 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다 적은 종이를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없이 전부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요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4남매나 있고, 돈보다 더 귀한 신용도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시민권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부는 과연 그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실업가는 그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어 긍정적으로 가능성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 바뀐 생각의 틀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 크게 성공하였다

인생의 업그레이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언제나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틀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생각의 틀을 긍정적인 생각의 틀로 바꾸어주셔서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푸/른/초/장

이규본 목사
(주비전교회)



오래된 영화 '빠빠옹'은 가슴에 나비문신을 한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점점 죄가 무거워져 나중에는 도저히 살아가 나올 수 없는 아프리카의 어느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늙은 나이인데도 절벽에서 아자나무 열매를 묶어 뗏목을 만들어 던진 후 바다에 뛰어 들어 탈출에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는 나가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고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한 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감옥에서 나가면 그런 생각은 너무도 빨리 없어지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 또 죄 짓고 살게 되는 것 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정작 자유를 얻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1. 죄의 종과 의의 종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 둘 중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인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하에,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19절)하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여기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결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어

는 사실이 죄를 범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3. 의의 종이 맺는 열매

죄의 종이 된 삶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입니다(21절). 이것은 미래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 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된 자는 죄의 종이 된 자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19절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또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를 짓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게 됩니까? 이것은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고 싶고,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어합니까? 싸우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 해주고 기도 해주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의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갈6:8).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여기서 삯은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삯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함을 살의 목표로 삼고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인가?(Whoes slave are you?) 로마서 6:15-23

하나,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실체적인 '의'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는 명목상의 '의'입니다.

의의 종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의의 종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아무 간격이 없습니다. 믿으면 즉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종이 되었으면 실제적인 의를 얻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

'의의 종'이 된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 당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던 자들이 예수를 믿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

편 사람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의 종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 즉 죄의 종의 운명과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할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아래 있다

의의 종이 된 자는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은혜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의의 종이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종이 얻는 영생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여 봅시다. 내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부득이 죄

기도시간을 **확실히** 하라 기도응답을 **확신** 하라 기도범위를 **확대** 하라

10월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저녁) ~ 25일(목, 저녁) (매일 오후 7:30, 오전 10: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감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교서기도원(전)장-장로-LS담임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BBT대표/KNMA 운영이사
총산대학교(TH,LA/THLD,com)미국 (CRUSD,Min)

1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권국의 언약에 취해 온 갈멜산교서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된 기도원으로 심도로운 영적 훈련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교도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크라리아는 대 카타리나와 팔레노 코너에 취해져서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님을 제외한 대립 어떤 것에도 대립 기도회로 대립 조성근 담임목사에게 직접 심의를 인도하는 대립 정기기도회였습니다. 신미주의를 격음주의를 펼쳐서 행하여는 교도들과 감동받은 기도성회에는 생명이 있는 담임목사에게 넘겨지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회 환경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성도자들은 빛의 헌신이 앞장서고 성도들은 권고하고 성도들은 헌신을 지니게 되어 사도들은 위로와 사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앞의 기도는 새로운 헌신에 기여의 빛과 열매입니다. 지금도 기도할 헌신과 관련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담대합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LA. MIJU GALMELSAN PRAYER CENTER

| 담임목사 | 조 성 근

| 부 목 사 | 황 건 영

| 전 도 사 | 김 성 희

Tel: (818) 306-4912

www.galmelsan.or.kr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7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다음세대(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미 교육과 문화 그리고 예배체함과 훈련을 통한 제자양육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그 Solution(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교육은 결코 간단히 몇 페이지 글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많은 미국교회들이 수백 년 동안 교단별로 경영해 온 기독교학교 교육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과 운영 면에서의 현실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실질적인 검토에 앞서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철학이 먼저 분명히 세워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갈수록 기독교의 교세가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그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해 온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이 이제는 기독교인의 수가 미국인의 절반이 못되는 48%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48%의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지 실제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는 통계의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이가 많은 고령 신자들이 아직은 살아 있어 교회의 명맥을 지탱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는 기존 기독교학교를 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들이 실패한 기독교학교들을 인수하여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요, 한국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교회 시설들을 주일예배와 주일학교로만 사용하지 말고 주중 동안 비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학교를 세워 우리 다음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은 결코 보편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기독교 교육은 누구나 교육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어느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다음세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수들에게 영재교육을 시켜 그들로 국가 사회 정치 경제 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학교 3학년 때 만난 주일학교 음악선생님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되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시간(50분) 수업 국사시간에 만난 국사 선생님 때문에 저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인격적으로 큰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간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이야기는 학교사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이 모두 중요하며 함께 연결한다면 더욱 교육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토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인교회로서 학교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서 북한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북한의 어린이들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이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교육의 힘에서 온 것인데 그 교육방법은 세뇌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교육도 학교를 세워 세뇌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의 효과는 공산주의 같은 체제가 뒷받침이 되는 나라나 문화적 환경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하

기독교학교는 소수 영재교육 아닌 보편적 기독교교육 실시 예수님 체험하고 인격 닦아 가는 고도의 커리큘럼 개발해야

미국인 30세 이하의 기독교인의 통계는 겨우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미국교회들 마다 주일학교 존재 위기를 지나쳐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수많은 미국교회들이 설립하여 경영해오던 기독교학교(Preschool,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등)들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교한 학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학비와 학교운영이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영해야 하는데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공립학교로 옮겨오는 학생들이 많고 근본적으로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산아제한을 함으로 인해 히스패닉을 제외하고는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거나 한 두 자녀 밖에 갖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기독교학교로 입학시킨다는 것은 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운다고 다음세대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와 준비가 없이 학교를 세워 미국 교회들이 이미 경험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리고 교회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루터교(Lutheran) 교단이 다음세대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사역(Schooling)에 가장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은 주일학교 커리큘럼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어느 교단보다도 학교사역과 주일학교 교육에 연구와 경험이 많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기독교학교 교육만이 다음 세대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하루 그것도 겨우 한 시간 정도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학교생활을 통해 기독교교육과 훈련을 병행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리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미국이 백 년이 넘게 오랫동안 추구해 온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소수의 리더를 키워 추종자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려고 한다면 교육이념에 위배되는 특히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이탈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정할 때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만을 골라 뽑지도 않았습니다. 직업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했고 오히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교육에서 보편성을 배제한다면 그런 교육은 진정한 기독교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주일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오전 단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시간이 정말

고 미개한 나라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 많은 선택이 있는 자유 분방한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발전된 방법(Method)을 투입해야 하며 아이들 스스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닦아 갈 수 있는 고도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교육의 실패 원인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세대의 문제 결코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계가 뜻을 모아야 하며 다음세대 교육(Schooling, 주일학교교육)과 문화 그리고 예배체함과 훈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해결책을 공급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는 말도 많고 시험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도 힘들어 하고 목회자도 힘들어 합니다. 저는 최근에 토론크스의 어느 장로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중간에서 서서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고 부흥되게 도울 수 있을까요?
-토론크스에서 한 장로

A: 저 역시 한인 이민교회를 30년간 목회하면서 개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느낀 바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의 직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영적성숙과 개발을 힘써십시오. 장로교회의 장로는 당회에서 목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당회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당회에서 다룹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되어 당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식견과 영적 지혜와 통솔력이 있어야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신령한 것이기에 늘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도 안되고 믿음이나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 성숙하도록 자기 발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직책을 맡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결국은 목사와 충돌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담임목사의 동역자로 영적성숙과 개발에 힘써야

둘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잘하시도록 돕고 협력하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담임목사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목사와 성도간의 중간에서 서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먼저 장로님이 목사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십시오. 성도들은 장로님의 모습을 따라갈 것입니다. 담임목회자가 비 성경적이거나 도덕성의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일단은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6: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목회자와 모든 면에 좋은 것을 나누시고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십시오. 목회자를 이해하려고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풍도를 만들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먹는 양으로서 말씀전하는 목사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도 자신감과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대사위(大事爲) 소사(小事)하고 소사위(小事爲) 무사(無事)"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장로님이 장로로 장임을 받을 때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게 되면 말도 많고 시험도 많게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바로잡고 나쁜 소문을 잡으십시오. 평화의 사도가 되고 목회자를 세우십시오. 생각을 크게 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페칼(Pekal)



인도네시아의 페칼은 수마트라의 경사 산지지역과 남서쪽 연안에 위치한 말레이 사람들이다. 인도네시아의 주된 섬들 중에 하나인 수마트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섬이다. 페칼은 북쪽

벵쿠루(Bengkulu)지역의 남쪽 모코모코(Moko-Moko)지역에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테라망(Teramang) 강 유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은 남동쪽의 바리산(Barisan) 산맥과 남서쪽의 인도양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때때로 페칼의 다양한 종족이 좀더 가능한 케타후(Ketahun) 지역의 남쪽으로 확산해 있고 넓게는 케타후(Ketahun)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새롭게 갈려진 트란-수마트라(Trans-Sumatra) 고속도로는 서쪽 섬의 연안을 따라 연계돼있

고, 벵쿠루(Bengkulu) 시에서 파당과 남쪽 수마트라와 연결돼 있다. 페칼 지역을 여행하면 고속도로가 남쪽 모코모코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이푸(Ipuh)의 심장을 가로질러 있다.

삶의 모습
페칼인의 주된 직업은 우기에는 농부, 건기동안은 어부로 일한다. 그들의 일은 전통적인 수공품과 도구에 의해 사용한다. 주된 생산품은 커피와 쌀과 조콜렛과 담배, 감자, 향신료, 땅콩,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한다. 바깥지역 판매원들은 매주 정해진 날에 그들의 제품을 가지고 온다.

많은 페칼 남성들은 정부고용인, 선생, 건축업자, 군대, 기술 있는 노동자들, 광주리 짜는 사람들, 벽돌

생산자들, 소몰이들, 그리고 상인들로서 고용되어진다. 페칼의 여성들은 농사일을 하며, 고기와 새우를 말리는 일도 한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5%가 안된다.

페칼의 집은 전통적 말레이 스타일에 죽마를 올려 세웠다. 옹호와 상호교환을 위해서 마을들은 다양한 카움(Kaums) 또는 종족 그룹으로 조직돼 있다. 만약 타인이 페칼에서 살기 원하면 그들이 살 곳의 사람들을 위한 카움 뿐만 아니라 다른 카움의 사람들을 위해 닭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후 그들은 지역 시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페칼은 그들의 종교적, 인종적, 교육적, 경제적 상태에 불구하고 공평하게 다룬다. 단 이 사람은 반드시 카움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 하며 페칼의 구성인으로서 그의 담당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한다.
언어는 말레이어를 사용하며 시골지역에서의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페칼어를 사용한다. 결혼식에서도 지역적 모임들과 문화적 모임에서 만일 페칼이 인도네시아 말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어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신앙
페칼의 100%가 무슬림이다. 그들은 경건하고 영적인 장소들과 도구들과 관계된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경멸한다. 그들은 결혼과 환경, 경작, 수확과 관련된 전통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 물질적인 필요와 헌신적인 일꾼을 제공한다.

페칼은 비를 부르고 악령을 쫓고 부도덕한 것이 행해진 곳을 깨끗

하게 하기 위해 무슬림 의식들을 행사한다.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며 자연적 재해피해를 위해 돕는다. 그리고 모스크를 세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돕는다. 그들은 마을의 필요를 돕거나 예배 참석에 매우 헌신적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페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적 자원들이 전혀 없다. 진리를 듣지 못하면 그들은 이슬람의 영적 노예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페칼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많은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롬니, 그레이엄 목사 방문 지지받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가 11일 미국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평가받는 빌리 그레이엄(93) 목사를 방문했다. 지난 8월 7일 관저에서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던 보수 성향 복음주의의 대부격인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몬트리트에 있는 그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간 것은 하루 25시간도 부족한 대통령 후보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레이엄 목사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전 세계 오지에서의 구호 활동과 종교 자유, 교회 성장사 등을 언급하며 롬니 후보와 30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롬니 후보는 이미 고인이 된 선전을 회고하면서 "아버지가 88세였던 어느 날 리빙머신에서 조깅을 했는데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쓰러졌고, 당시 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결국 운명하셨다"면서 "어머니는 그 1년 더 사시다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레이엄 목사는 미시간 주지사서 지낸 롬니 후보의 부친 조지에 대해 언급을 했고, 조지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롬니 후보에게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롬니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한) 기도"라고 답했다. 기도가 끝나고 그레이엄 목사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용해도 좋다"고 언급, 사실상 롬니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바쁘다 바쁜 시점에 롬니 후보가 일부러 틈을 내 그레이엄 목사를 만난 것은 단순히 그의 건강을 묻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의 판세가 극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레이엄의 '지지' 선언을 얻어내 경합주들 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의 표심을 확실히 붙잡아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롬니 후보가 모르몬교도여서 보수 정통파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미전역의 보수표를 끌어 모으려는 이른바 '집토끼 단속'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동성결혼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다.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큰 의견차를 보이는 주제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미 공관 피습사건 조사 예멘관리 피살

예멘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예멘의 보안 관리가 11일(현지시간) 운전 도중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예멘 정부와 미국 대사관의 치안 조정자 역할을 해 온 카심 아클란은 이날 오전 수도 사나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아클란은 사나의 주요 도로인 시틴에서 운전 중 오도바이를 타고 옆을 지나가던 괴한이 손 총탄에 맞았다. 예멘 내무부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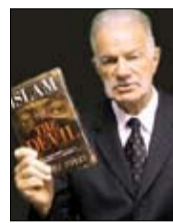
아클란은 지난날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여파로 예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공격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미국 관리의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예멘 보안 당국은 알카에다 조직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미국인 1명을 체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예멘 보안 관리는 한때 알카에다 근거지였던 남부 도시 사브와와 한 호텔에서 미국과 독일 여권을 소지한 한 남성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예멘 당국으로부터 이 남성의 국적과 신원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코란 소각 존스 목사 입국 거부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11일 이슬람 경건인 코란을 소각해 세계적 물의를 빚었던 미국 테리 존스 목사의 캐나다 입국을 거부했다. 존스 목사는 온타리오 주 토론토의 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테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정오께 국경도시 윈저의 앰베서더 다리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CBC방송이 보도했다.



존스 목사는 입국 심사대에서 즉각 2차 심사 조치를 받고 수 시간 동안 자동차 검색과 심층 심문을 거친 끝에 발길을 돌렸다고 이 방송은 말했다. 그는 캐나다 관리로부터 "증오 연설"에 관한 "정중함" 질문을 받았으며 "내가 참석할 집회와 연설이 문제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경 당국은 "캐나다 입국 여부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우리 수칙"이라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입국 여부 결정을 위해 인권위반, 조직 범죄 및 범죄 경력, 안보, 위생 문제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존스 목사는 지난해 3월 공개적으로 코란을 소각해 이슬람권의 반미 시위를 유발했으며, 최근 이슬람 모독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성경대로.." 아들 죽인 맹신교인 유죄

8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기독교 맹신자의 살인 사건 재판이 중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15일 WSB 방송 등 애틀랜타 지역 언론에 따르면 디캡 카운티 법원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벤저민 에더턴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에더턴은 지난 2004년 성경을 과도하게 해석한 나머지 태어난 지 다섯 달 된 셋째 아들에게 심한 매질을 가해 목숨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으며, 당시 둔기로 맞아 온몸에 피멍이 들고 두개골과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살 된 딸과 한 살 된 아들도 아버지의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구타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당 가해의 근거로 삼은 성경 구절은 '매를 아

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별로 다스린다는 잠언 13장 24절이다. 그는 "성경 말씀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시켰을 뿐"이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가면서 취재진과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는 등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법원은 살인 혐의를 기각하고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출옥 후 피고인이 두 자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남편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저지하지 않은 아내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 중이다.

미얀마 승려 수천명 OIC 반대시위 벌여

15일 미얀마에서 이슬람 협력기구(OIC)의 국내 활동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OIC의 국내 사무실 개설을 금지할 것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미얀마 대통령궁의 한 관계자는 "테인 세인 대통령이 OIC의 국내 사무실 설치에 국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OIC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OIC는 미얀마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이날 미얀마의 최대상업도시인 양곤과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 등지에서 승려 수천명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OIC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도우려 한다며 정부에 57명의 OIC 위원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불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서는 불교도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간에 유혈충돌이 발생,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OIC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로힝야족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를 설득해왔으며, 지난달에는 57명의 위원이 라카인 주를 순방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얀마 주민 대부분도 이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담임 목사 청빙

덴버 한인 장로 교회에서는 양 무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1세와 2세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며 뚜렷한 신앙 비전과 겸손으로 목양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
2. 정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이상 단독 목회 경험이나 부목사 경험이있는 분.
3.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로서 35세 ~ 50세 초반

제출 서류

1. 본인과 사모 소개서(최근 가족 사진 첨부)
2. 신앙 간증문과 사역 비전 및 계획서
3. 최근 셀프(6개월 내) 동영상(web address) 이나 CD 2회본
4. 목사 추천서(2인 이상)
5. 학위 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및 안수 증명서

참고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제출처

우편 혹은 e-mail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Denver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 교회: (303)422-8950 | info@kpcod.org
덴버 한인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병욱 장로 (303)422-8777

제출 기한

2012년 10월 31일(당일 도착분에 한함)

담임목사 청빙

세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성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교회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보낼곳

이메일: sangwoo@sbcglobal.net
담당자: 담회시기 수상목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참고 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의는 이메일로 만 바랍니다.
2.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3.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세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임시 담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미주크리스천신문
46쪽의 목회자를 위한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투고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충동 조절 장애 3기 (衝動)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배고르면 먹을 것을 두고도 안 먹고 참고, 아끼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일정기간을 정하고 금식도 할 수 있으며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어도 야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사회는 충동조절에 이상이 생긴 그것도 3기 환자들 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쟁탈충동조절에 장애자가 많아졌다 것입니다.

권력충동은 무서운 병입니다. 독재자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가족도 가차 없이 죽여 버리고 정적들은 숫자의 제한 없이 처형해 버리는 악한 역사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정권을 실력으로, 민의에 의해 취하기보다 수단과 방법, 온갖 감언이설, 네거티브전으로 쟁탈하고자 말겠다는 자들은 정권쟁탈 충동조절장애자들입니다.

부정축재충동 조절장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대단합니다. 엔화 환치기 사건, 저축은행 비리, 바다이야기, 기업부도 등 큼직한

한 사건,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와 비자금, 한 건해서 자손대대로 잘 살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축재충동 조절장애역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성적충동 조절장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TV, 인터넷, 비디오 등 음란영상물이 제재 없이 확산된 이후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적충동조절장애는 나이와 상관없이 걸리며 대상도 미성년자, 초등학교 구분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절장애 3기가 넘는 자들은 수년 간 감옥생활 하기도 탐욕하자마자 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병이요, 타인에게 인생일생을 망가뜨리는 추잡하고 더러운 병, 악한 병입니다.

혈기충동 조절장애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생을 꽤 오래산 자들이 심지어 지도급 인사들이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기분 나쁘고 화난다고 죽이고, 자살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사실입니다.

다. 혈기충동 조절장애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진다 하면 그 피해는 상상도 초월합니다.

거짓말충동 조절장애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상한 머리와 알리바이까지 연구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가 장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워낙 줄기차게 또는 목비권 행사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범에서도 오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같은 목적인 때는 의도적 오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다섯 가지 충동조절장애 3기 병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적 백신도, 법적대책도, 제도적 치유도 없이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전문의도 없으며 종교적 치유도 무능한 상태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약이 무서운 것은 저항력을 죽여 버리고 조절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독한 마약은 1회 복용으로 평생 중독자가 되게 하듯이 조절장애도 마약중독자 못지않게 치유가 힘들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서신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이처럼 악해도 됩니까?

중국 북서부의 농장에서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려고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호스를 꽂아서 쓸개즙을 뽑는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한 마리의 새끼 곰을 쇠사슬로 묶어 놓은 채 쓸개즙을 뽑아냈습니다. 새끼 곰은 극심한 고통에 절규하면서 몸부림쳤으며 이를 보고 있던 어미 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해서 철창을 부수고 탈출하여 새끼 곰에게 뛰어갔습니다. 새끼 곰의 쇠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끊을 수 없었던 어미 곰은 새끼를 끌어안고 질식사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벽으로 들이쳐서 머리를 부딪쳐 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인간이 이처럼 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 곰의 쓸개즙을 빨아먹으면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은 분명히 말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할 것이 아닙니다. 새끼가 당하는 고통을 지켜봤을 어미 곰이 이와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만 좋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말종의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동물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야만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주신 인간의 존재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미물이라 할 수 있는 곰에게까지 원망 받을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부름 받은 인생들은 그 이름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 이상 창조주를 욕되게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산 곰의 쓸개즙을 빼먹는 잔인한 행위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고통으로 죽어갔을 새끼 곰이나 어미 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그분이 지으신 세상 만물에 대해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어린이 인권조례' 통과에 보수교계 반발

[CBS] 서울시가 추진해 온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특정 종교에 대한 학습, 행

사 참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진일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겨냥한 선교 조치 제한이라는 게 대체적인 보수 교계의 시각이다.

한국교회연론회는 "특정종교에 대한 금지도 결국은 우리 사회

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교회연론회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특정 단체의 일정한 목적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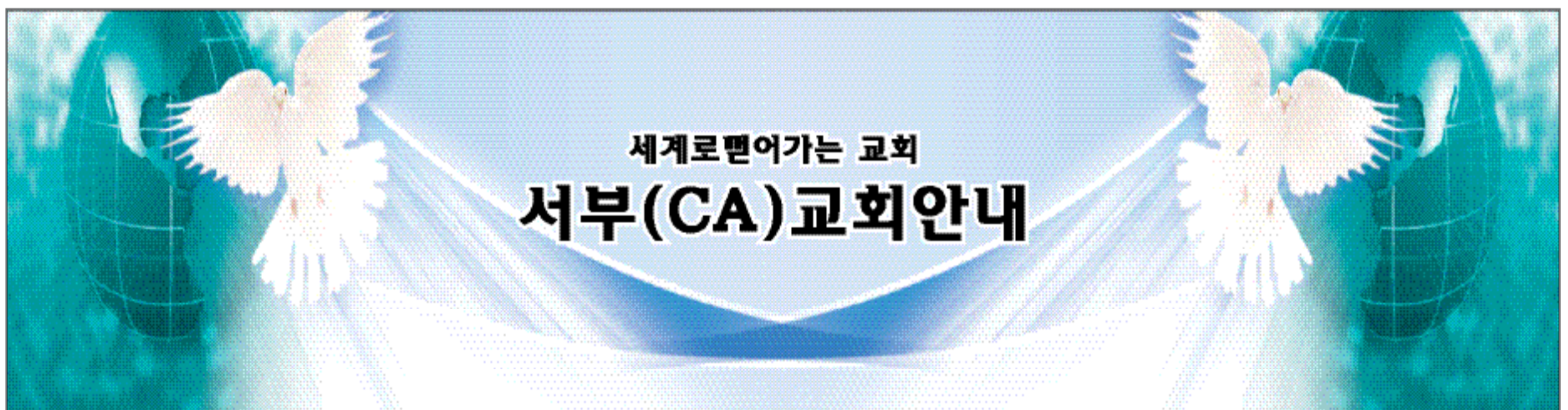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주둔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용장로교회, 동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배델인인교회, 빈쿠버빌리언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세계비전교회, 세계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일배인침례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오렘선교회, 원서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교회, 로렌스조은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들.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10.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크리스천들이 좋아하고 자주 듣는 복음성가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에는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창1:26-27), 하나님의 자녀(눅3:38)로 창조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요1:12)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1. 누가 나의 메이커인가?

소나타, 캐딜락, 코롤라 등은 잘 알려진 자동차들이다. 이 차들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면 ‘현대, GM, 도요다’라고 대답을 하지 ‘자동차회사의 노동자들’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동차라는 물건을 직접 만든 것은 노동자들이 맞지만 그 자동차를 설계한 주체가 진정한 메이커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노동력을 투입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메이커도 노동을 제공한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유전정보를 설계하고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나의 메이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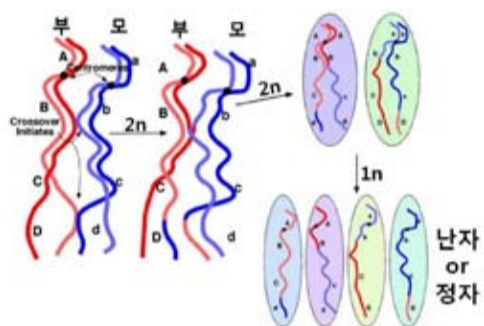
2. 수정란의 형성

생물학적으로 ‘연체부터 사람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생명은 수정란부터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정되는 순간에 비로소 이 생명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유일한 모든 유전정보가 갖추어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 유전정보에는 수정란이 자라는데 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태어나서 얼마나 빠르게 자라갈 것인지, 키가 얼마나 클지, 수명은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심지어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인지의 정보도 들어있다. 물론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두 벌(2n)의 유전정보는 난자(1n)와 정자(1n)에게서 온다. 이 수정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왜 같은 부모에게서 매 번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지를 알게 된다. 난자나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모 세포에서 한 번의 체세포 분열(2n → 2n)과 한 번의 감수분열(2n → 1n)을 거쳐 만들어진다. 여기서 체세포 분열하기 전 유전정보 2n 중 한 n은 아버지에게서 다른 한 n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첫 과정인 체세포 분열과정에서 두 벌(2n)의 유전정보들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 꼬였다가 갈라지는 과정(crossing)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새로 만들어진 n은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전정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n의 유전정보 조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산술적으로 약 25,000개의 사람 유전자들이 재조합되어 생겨날 수 있는 n의 정보조합 경우의 수는 1에 0이 504개 붙어 있는 엄청난 수다. 우주

어떤 세포도 다른 세포 못 만든다는 것은 ‘창조’ 증명 25,000가지 인간유전자들이 창조자 연출 따라 움직여



난자와 정자의 형성과 유전정보 재조합
25,000여 개의 유전자들이 재조합 되므로 난자나 정자의 유전적 다양성은 천문학적 수보다 더 크다

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가 1에 0이 80개 붙은 수이므로 사람의 유전자 재조합 결과 즉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이 생겨나는지 실감할

것이다. 이런 난자 한 개와 정자 한 개가 서로 결합하는 순간이 우주에서 유일한 정보의 조합을 가진 생명체가 탄생되는 기적적인 것이다. 이런 거의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한 가능성이 각각의 사람들인 것이다.

3. 사람의 발생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형성되고 약 3일이 지나면 이 수정란은 약 250개의 세포로 분열이 일어나고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된다. 착상된 배아는 점점 자라 장기들이 형성되고 총 40주의 임신 기간 동안 성장하여 아기로 태어나게 된다. 이때 한 개의 세포인 수정란이 분열하여 두 개의 세포로 되는 과정을 살펴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세포는 수십억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품들 중에 과학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더구나 그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살아 있는 생명체인 세포가 될 수 있다. 세포의 부품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스스로 조립될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 세포는 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두 개로 될 때 첫 세포가 자라나서 두 개로 분열되지만 하지 첫 세포가 두 번째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세포도 다른 세포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은 세포가 창조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기적으로 창조된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정보는 분열하여 두 개의 세포가 되는 정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대단한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빈틈 없이 설계하신 창조자의 능력에 경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의 수정란 세포가 분열하여 자라나는데 과정에 사람의 모든 장기가 생겨난다는 사실도 기적이다. 똑 같은 정보를 가진 세포에서 어떻게 근육세포가 만들어지고 간세포가 만들어지고, 혈액세포, 혹은 눈 신경세포가 만들어지

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분화(differentiation)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정해진 시간과 위치에서 어떤 정보는 억제되고 어떤 정보는 활성화 되도록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다. 약 25,000가지의 유전자들이 환경과 시간에 따라 창조자의 연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을 제공하는 엄마의 역할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진정한 메이커인가? 정보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정보는 주인이 있다”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를 만든 존재는 과연 어떤 분일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성경의 창조자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1:16).

그분은 어떻게 주장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4:16).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것이다(사9:6).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방심은 위기

인간의 악함이 최악이었을 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의 심판으로 정리를 하신 후 노아의 자손들로 다시 인간세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방주를 짓느라 온갖 비난과 고생을 감수하며 방주를 짓던 100년의 훈련과 그 무시무시한 홍수에서 달랑 살아남은 8명의 노아자손들입니다.

1년간이나 방주 안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방주 밖으로 나오길 고대하던 저들입니다. 1년 후야 방주에서 나오니 모든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지요. 방주에서 나와 바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경성하던 그들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 8식 구였으니 손주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갔는지는 몰라도 손주들도 생기고 가족이 붙어납니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칭합니다. 워낙 죄로 찌든 정도가 심하였기에 저들에 비하면 그래도 덜 썩었다는 말이지 노아의 상태가 어느 정도 기록의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이제 모든 핏발도 고통도 다 지나 살만해지니 그 기록한 가족 안에서 홍수이전 사람들에게 만연하던 죄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 시대에 만연한 죄의 실상을 자신도 모르게 걸음은 구별된 삶이었으나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물들은 부분들이 구원받은 가족들이 마치 죄의 허가서라도 받은 듯 놀랐던 죄성들이 기회를 타고 드러납니다.

방주 짓기에 올인 하느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은 전혀 눈물릴 새가 없던 노아가족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주 짓고 마음용일 일이 없어진 주어진 새 삶을 누릴 일만 남은 상황에서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농업을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급기야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온몸을 드러내는 추태를 보인 의인 노아입니다. 죄에 만연한 세상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이제 살만하니 홍수로 쓸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을 재연하는 노아가족입니다.

사실상 모든 족속의 대표 리더인 저가 “목에 힘주고 우리에게 일만 시키던 아버지가 술 취해 벌거벗었다...” 대표 족장의 권위가 땅에 실추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수함을 고소해하며 웃어개끼리로 떠들며대는 함과 이를 듣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의 죄를 가려주고 축복받는 셈과 야벳, 그리고 아베의 죄와 더불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배부르도록 받은 가나안입니다.

언제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새로 출발한 노아의 자손이 홍수이전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보며 웃기만 할 때면 사명을 완수하고 가족들의 형편이 풀려지니 여러 가지 세상 죄에 담대해지는 모습입니다.

“씻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을 꼭 부어잡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덴버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한국) 목회기도회: 오후 7:00	월곶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보스만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시카고에브림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알란사 재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앵커리지델리안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앨파스델리안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목회기도회: 오후 7:3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큰문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타코마사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인/터/뷰

미주내 이슬람복음화를 꿈꾸는 임준규 선교사

“미주내 무슬림을 향한 선교가 시급한 때입니다”

LA에서 다민족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임준규 선교사(GMP소속)가 미주 내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의 도전을 받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15일 기자와 만난 임준규/임보희 선교사는 자신의 신앙여정을 들려주며 기도를 부탁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임준규 선교사는 1994년 조지워싱턴유니버시티 유학생이 돼 미국에 첫 발을 디뎠다. 새롭게 미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세례를 받았다.

1998년 예수전도단 수련회에 참석한 임 선교사는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중생의 체험도 맛보았다. 결국 그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자 올랜도 RTS에서 목회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돼 올랜도 한인침례교회를 담임했다. 그곳에서 담임목회를 하며 감옥



미주내 이슬람복음화를 위해 요르단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임선교사 부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의 실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뽑아보니 미주 내 무슬림들이 52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그중에 절반

어머나가 피아니스트인 임보희 사모는 어머니의 재질을 이어받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피아니스트다.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

그런 임 사모에게 어느 날 임목사가 전화를 했다. “이슬람권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함께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고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긴 세월 지나 확인된 선교지가 이슬람권인가? 나는 괜찮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감사함과 두려움이 눈물로 표현되어 흘러내렸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자, 아이들이 순수하게 응해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 하리라” 이렇게 맘먹은 임 사모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 셋이 모두가 “아버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임준규 선교사 가족은 향후 2년 동안 요르단으로 가서 언어습득 및 문화 체험을 하고 돌아와 ‘아랍어로 복음 전하기 및 미주 내 무슬림 개종자 공동체 씨앗 뿌리기’를 이뤄가고자 한다. 이후 미주 내 무슬림 개종자 교회 개척과 이민자들에게 대한 사역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미주 내 무슬림 디아스포라 선교사 동원사역까지 확대해 가고픈 비전을 품고 있다.

불신자 가정과 4대째 믿음의 가정 자녀의 만남 가족 모두 이슬람 선교사로 헌신위해 준비 중

(Jail) 선교와 캠퍼스, 올랜도 지역 백인동네 가정들을 돌며 전도에 전념했다. 3년쯤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민족을 섬기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선교의 사명을 품은 임준규 선교사와 가족들은 서둘러 삶을 정리하고 캐나다 선교훈련학교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재훈련을 받고 LA에 옮겨 앉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역에 대한 상세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LA에 도착해 다시 감옥 사역을 시작했다. 감옥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 매주 화요일이면 그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토요일에는 다민족들이 밀집해 있는 맥아더 공원을 찾아가 그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누며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미국내 무슬림공동체

그러던 그에게 미주 내 무슬림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된 것은 이준호 목사(GMP선교회 미주대표)를 만나고부터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임 선교사의 마음에



임준규선교사가 맥아더공원 사역팀들과 함께 빵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은 라티노, 흑인 등이 개종한 무슬림이 되고 나머지 반은 이곳으로 이민온 아랍계 무슬림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미시건 주 어느 한 지역에는 무슬림 밀집지역으로 그곳에서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도 이어지고 있었다.

미주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슬림들이 임 선교사는 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기로 작정했다.

온 가족이 선교사로 무장, 요르단으로

난 임 사모는 힌돌교회 반주자로 헌신하며 예수전도단에서도 사역해 오다 임 목사와의 결혼으로 1996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반주자로 섬기며 랫슨을 통해 임 목사의 사역을 도왔다. 사실 임 사모는 청년시절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기쁨으로 임 목사의 사역을 도우며 최고의 동역자로 일하며 나를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지 기대하고 있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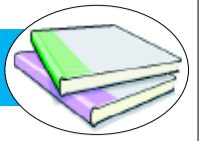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다.

이들 가족으로만 이 큰 꿈을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절실하다. 요즘 임 사모는 40일 금식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파송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역비전을 계속해서 나눔으로 동역교회와 후원교회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2. 내년에 요르단으로 나가기 위한 재정플랜을 채우고 현지적응과 온가족이 이사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3. 아랍어를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4. 임보희 선교사와 다윗, 하리, 규리의 현지 적응 및 학교문제를 위해서.
5. 특별히 영적전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메일: juneqlim@yahoo.com (이성자 기자)

새책소개



칸타타 ‘한 아들 주셨네’, ‘베드로의 고백’

저자 백경환 목사

가나안교회 (담임 이철 목사)에서 음악목사로 섬기고 있는 백경환 목사가 부활절 칸타타 ‘베드로의 고백’과 성탄절 칸타타 ‘한 아들 주셨네’(기음출판사)를 소개했다.



지난 3월 출판해 부활절에 연주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지난 7월 작곡발표회에 선을 보인 ‘한 아들 주셨네’는 백경환 목사가 출간한 10번째의 칸타타 곡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발표한 후 성탄절 칸타타를 발표하고픈 꿈을 안고 있던 차에 이상윤 장로가 가사를 보내줘 6개월간 기도하며 준비하여 완성된 곡이 ‘한 아들 주셨네’이다.

이 곡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물론, 죄

구원의 메시지 담아 듣는 이들 깊은 감동

악 속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고 작사 작곡했다. 부활절 칸타타 역시 구원의 메시지로 장식되어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백경환 목사는 “음악인생을 살아오면서 연주 찬양보다는 예배 찬송을 중심으로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을 작곡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며 “부활절과 성탄절 칸타타 역시 음악예배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도 30분정도의 음악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가나안교회 음악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백 목사는 가나안교회 40주년을 기념 음악회를 계획하고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곡을 중심으로 명성가 6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음악회에는 독창과 소프라노 이지은, 바리톤 이영 전도사, 핸드벨과이어 등의 특별 출연도 준비된다.

향양대를 거쳐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한 백 목사는 고교시절 음악사 책을 보다가 작곡가들이 중심이 된 것을 보고 본격 작곡수업을 받기 시작해 1년 만에 연대 작곡경연대회에서 수석을 차지한 바 있는 음악의 귀재이다. 그는 1960년부터 성가대를 지휘하며 300곡에 가까운 작품을 만드는 등 50년간 음악인생을 살았다.

‘베드로의 고백’, ‘한 아들 주셨네’ 칸타타 구입은 단체구입이 가능하고 자세한 것은 (213)210-3283 /388-19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계 인재 발굴, 양성과 세계교육선교를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계 교육선교를 위한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

7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Mission

인적자원개발, 교육컨텐츠개발, 교육정책연구개발, 교육봉사, 지식기부를 통해 지구촌 인재를 발굴하여 지성, 인성, 영성, 리더십을 갖춘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여 세계선교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 교육선교를 하거나 계획하는 교회, 교육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전·현직 교사, 전문인, 전문기술자, 대학생 등 단·장기 교육선교사로 사역하기 원하는 분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신청기간
2012년 10월 30일 까지

신청접수처
jp@midwest.edu

일시: 2012년 12월 3일-7일

장소: Midwest University

2012년 12월 3-5일 까지 컨퍼런스
+ 선택(6-7일) 양일간 미국 공립, 사립학교 교육현장 답사)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공항 Lambert St. Louis International Airport)

▶ 컨퍼런스 참가자혜택 ◀

1. IEC/ WCSN Membership 부여
2. Member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미국인 교사 파견
3.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고가의 학생관리 프로그램 IEC-AMP 지원
4.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제공 (국제학교, 대학 프로그램)
5. 학교의 여흥방학 등 특별 프로그램에 교육협력봉사단(교사) 파견 및 교사, 학생 교환 프로그램 기회 우선적 지원

예정강사



Bill Federer (국제교육협력기구(IEC) 총재) Rep. Jerry Nolte (미중리우 의회 국제교육과 Job Creation 위원장 하원의원) Rep. Lindell F. Shumake (미중리우 하원의원) Dr. James Song (Midwest University 총장) 이승중 목사 (중공국제대 이사장)



강성일 박사 (세계한인선교사협의회 대표회장) 정금태 박사 (파리과외 기독교 예술학교 이사장) 정승룡 목사 (농사랑 교회) Mr. Robb Lynch (IEC Teacher Recruitment and Training Director) 이희철 박사 (IEC-School Management (패우 GGU) Director) 지영민 대표

주관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IEC) 국제교육협력기구, World Christian School Network (WCSN) 세계 크리스찬 스쿨 네트워크, Federation of International Schools (FIS) (K-12)

후원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 한국 기독교 대학교 연맹, CTS 기독교 TV, 미주크리스찬 신문